

시민 면역력 높여 '코로나19 블루' 극복한다

광산구 '면역력 증진 프로젝트' 보건소에 클리닉센터 설치
걷기운동 활성화 시민문화 정착
비대면 정신건강 처방 서비스도

광주시 광산구가 지역민의 '코로나19 장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 면역력 증진' 보건 행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1년 가까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다수 주민들이 무작정 불안감을 느끼는 등 무기력 증상에 빠지는 일명 '감염병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광산구는 주민들의 감염병 스트레스를 '시민 면역력 증진 프로젝트'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 행정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시민 면역력 증진 프로젝트'는 자가면역력과 사회면역력 증진 등 모두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광산구는 시민면역력 증진 대표적 사업으로 '시민 면역클리닉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면역력 증진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클리닉센터는 시민들이 스스로 몸 상태를 인지해 질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전담한다. 특히 시민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면역력을 측정·상담·진단에 맞춤형 처방을 실시하고, 면역력 활성화 측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자가면역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구보건소에 시민면역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1개 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사회면역력 증진을 위한 '걷기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걷기광산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축구장과 야구장, 테

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광산구는 해당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풍영정전 천변길을 비롯한 다양한 강변길, 공원길 등을 시민이 안전하게 걷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한다. 또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걷기 지도자를 양성해 동아리, 마을별 걷기모임을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걷기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걷기 문화를 시민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시민면역력 증진을 위해 호흡기 질환 1차 진료를 전담할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지원한다.

구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감기나 독감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광산구 관내 각 병원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광산구는 일단 이달말까지 관내 5개 병원에 호흡기전담클리

닉을 지정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또 시민 정신건강 면역력 증진을 위해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로 '광산ON톡플랫폼'도 구축했다.

'광산ON톡플랫폼'에서는 우울 불안 등 기본문제, 수면문제, 대인관계 문제에 도움을 주는 긍정치방, 명상치방, 여행치방, 푸드치방 등 8가지 처방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광산구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이용후기를 작성하면 모바일 음료 상품권과 정신건강 면역증진 꾸러미도 증정한다.

광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돌봄서비스가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만 60세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면역력 증진을 꼼꼼하게 챙겨 대한민국 보건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포상
광산구 우수기관 선정 장관상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4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2020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자 포상은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7회째이며, 그동안 광산구는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등을 비롯한 총 6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 장보기 행사와 공직자 온누리 상품권 구매 운동을 이어가는 등 전통시장 매출 증진에도 힘써왔다. 전통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곡시장과 1913송정역시장 내에 주차타워도 건립했다.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비아5일시장 주차타워도 건립 중이다.

광산구는 이같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장 방문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인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자 포상 개인 부문에서는 1913송정역시장 범용 상인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주민 갈등 풀어낸 광산구 공론화 노력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이끌어냈다

여론조사까지 실시해 지정 건의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광산구의 노력이 주목 받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일 환경부는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2018년 정밀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포함해 829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점을 들어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던 2018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유보된다. 도심에 있는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은 송정역세권 개발 사업과 광주송정역 이용객 주차장 등 편의시설 입지와 맞물리면서 반대에 직면했다. 개발과 보전으로 지역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광산구는 주민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

안을 내냈다.

이에 따라 갈등관리전문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회원, 구의회의원 등 16인이 참여하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다. 실무위원회는 대토론회, 주민소통간담회 등 총 20여 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만들었다. 주민들이 우려했던 오해가 풀리고,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등 소통의 길이 열렸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결정하기로 할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큰 소득이었다.

지난해 11~12월 습지 인근 지역 5개동과 광산구민, 광주시민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형 대면조사 방식의 '국가습지 지정 주민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결과는 지정 찬성 85.8%, 반대 14.2%였다. 이를 근거로 광산구는 환경부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광산구가 주도한 일련의 공론화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로 지혜롭게 지역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 7일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를 방문한 이용섭 광주시장 등 실무위원들에게 습지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광산구의 공론화 노력이 빛을 발했고, 광주는 국립공원 무등산과 국가습지 장록습지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 그 이름을 알리

게 됐다"면서 "국가습지 지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습지 보전과 휴식, 여려, 지역개발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한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강화한 저감대책을 마련해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제도다.

최근 3년(12~3월)간 관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14%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12~

3월에만 8회 발생하는 등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집중 감축을 목표로 수송과 산업, 발전, 생활, 건강보호, 소음 대응부문 등 6개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2021년 1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한다.

단 차주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생활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집중도로로 지정된 6개 도로에 살수차 3대, 노면정소차 25대, 분진흡입차 3대 등 31대를 투입해 하루 3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한다.

건강보호, 소음부문에서는 안전시민실천본부 푸른하늘리더단을 활용해 5개 권역별로 다중이용 시설 및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 아파트단지 등에

서 차량 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시민 동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정동훈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3월에는 불리한 기상여건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배출량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계절관리기간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형 공공배달앱 사업
민간 사업자 '위메프오' 선정
내년 4월부터 시범운영

광주시는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구축·운영할 민간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위메프오'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형 공공배달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지자체가 보완하는 민관협력형으로,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고 중개수수료 3% 이하, 지역화폐 사용 가능 등 다양한 장점을 담고 있다. 또 전통시장 장보기 기능 등도 탑재해 시장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11월19일부터 12월1일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며, 3개 업체가 사업계획서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는 정량평가(25점), 정성평가(80점)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제안서 추첨을 거쳐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7명의 평가위원이 최종 평가를 실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